

번역에서 추론의 필요성*

박기태

(건양대학교)

Park, Kee-Tae. 2007. The Necessity of Inference in Transl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4), 147-16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dress the necessity of inference in translation. Concerning with the right translation of original sentences into Korean, first of all, translators must know the ultimate wholeness of the image in them, including contexture, schematic knowledge, and systematic knowledge. With respect to these issues, I analyze some examples and, as one way of avoiding mistranslation, remark the validity of inference in many sentences. Thus, as conditions to produce the right translation, I emphasize the stream between writers and translators. Also, I point out the same stylistic value both target languages and source languages, propositional knowledg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xpression in the source language. Consequently, in order to give the right meaning of writers to readers, translators must consider various aspects on the view that contains inference based on utterance, context, and schema, etc., in discourse analysis.

주제어 (Key Words): inference, contexture, schema, utterance, propositional knowledge.

1. 시작하는 말

흔히 우리가 잘 되어진 또는 올바른 번역이라 함은 번역되어야 할 대상 언어(목표언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우리말을 선택하여 원작자의 의도에 알맞게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표현함을 뜻한다. 목표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 의미과약의 기본요소인 의미·통사·음운에 관련된 완벽한 배경지식, 상황맥락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공동텍스트로써 선행적인 말(what has been)과 앞으로 올 말(what will be

* 본 논문은 2007년 11월 17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언어학회 · 한국영어학회 · 현대문법학회 합동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Comment를 받았으며 감사드린다.

said or written)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번역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으로써 백과사전적 지식인 사실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절차적 지식들을 근거로 어떻게 언어가 담화 속에서 사용되는가(how language is used in discourse)에 대한 선형적인 지식(schematic knowledge)을 가져야 한다. 위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 도식화 1.

background knowledge		C
- factual	schematic	O
- sociocultural	knowledge	M
procedural knowledge		P
- how language is used in discourse	↑ ↓	R
knowledge of situation	↑ ↓	E
- physical setting, participants, etc.	context	H
knowledge of co-text		E
- what has been/will be said(written)	↑ ↓	N
knowledge of the language system	↑ ↓	S
- semantic	systematic	I
- syntactic	knowledge	O
- phonological		N

사실상 번역은 위의 도식화 1에서 나타난 지식들을 바탕으로 번역자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썼거나/말한 것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한 언어현상에서 발생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번역문을 통하여 세계적인 지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보통사람들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번역된 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은 표현할 언어가 목표언어(target language)¹⁾의 원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 말투, 문체, 그리고 의도에 알맞도록 상황에 따른 담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심리적 조건반사를 뛰어넘어 목표언어의 문장을 보았을 때 그것에 알맞은

1) 본 논문에서 목표언어(target language)는 표현할 언어로 번역되는 글 또는 언어를 뜻하며, 구체적으로 영어를 말한다.

것 같은 문장을 성급히 표현해놓고 뒤돌아보지 않는 어설픈 번역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번역을 위한 담화적인 요소들 중 추론(inference)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번역에서 추론에 필요한 명제적 지식, 상황적인 텍스트성, 그리고 등가관계 같은 언어 외적인 사항들을 근거로 번역자가 원작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번역방법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번역에서 추론의 개념

추론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선 담화 이해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한다. 담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담화를 마음속에서 처리하는 작업과 비교할 때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일반적인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담화의 개념 속에는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텍스트라는 자료가 있다. 따라서 번역에 있어서 담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발화체로 처리하는 것이며, 아울러 발화체의 자료를 목표언어에 맞게 표현할 언어(source language)로 회수, 복원하는 일이다. 모든 담화 이해의 이론에서 추론의 개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의 연구들²⁾에서, 추론에 관련된 이론 없이는 담화 이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추론의 개념이 중요한 까닭은 인간의 언어가 중의적이고 단편적이기 때문에 담화는 물론 번역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추론이 담화 이해 과정과 번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2) 추론 과정은 심적으로 어떻게 표상되는가?
- (3) 추론 과정이 수행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 (4) 추론은 맥락에 어느 정도로 의존하는가?

반 다익과 킨취(Van Dijk & Kintsch, 1983:52)는 추론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모든 면에서 아직 불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추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²⁾ 가령 Bransford, Barclay, & Franks(1972) 또는 Bransford & Johnson(1972) 참조.

- (5) 추론 : 텍스트 발화체가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및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청자가 신정보를 얻는 인지 과정.

여기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텍스트 발화체와 맥락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인지심리학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의 가장 현저한 차이로써, 논리적 추론이란 모든 맥락에서 똑같은 결론³⁾을 얻지만, 인지심리학적 추론은 그 맥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5)의 정의 이면에 먼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우리가 담화 상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6) a. 의미론적 정보 : 낱말의 개념, 명제, 심적 모델
b. 비의미론적 정보 : 음성적, 형태적 정보⁵⁾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습득, 주의 집중, 그리고 기억과 같은 인지적 관점에서 이들이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며⁶⁾ 담화 이해 과정은 전체 체계를 위해서 각 인지 과정들이 서로 다른 기능으로써 기여하는 하나의 복합적 체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5)의 정의를 따른다면, 우리는 부의미론적(subsemantic) 정보의 완성 과정도 추론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 (7) Who's crying? (안정효, 1996:35)

(7)은 억양에 따라 “누가 우는가”라고 번역되지만 울음소리를 내는 원인 제공자의 억양이 화를 내는 목소리일 때는 “울긴 누가 운다고 그래?”가 된다. (6)의 정보 처리 과정과 (7)의 두 가지 번역을 연관시켜 분석하면 “누가 우는가”는 (6b)가 될 것이며 “울긴 누가 운다고 그래”는 (6a)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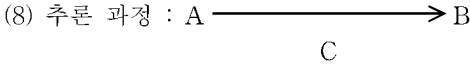
³⁾ All humans are mortal
Socrates is a human
∴ Socrates is mortal

⁴⁾ Harris(1964) 참조.

⁵⁾ Rickheit, Schnotz, & Strohner (1985)참조.

⁶⁾ Brewer & Hay(1984)참조.

따라서 인지심리학적 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6b)를 구정보(old information) A로 상정하고, (6a)를 신정보(new information) B로 상정하며 (7)을 담화맥락 C로 보자. 신정보의 생성 과정으로써 화살표로 표시하면 추론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과정은 네 가지 구성요소⁷⁾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A와 B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추론 과정 전반은 다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 (9) a. 정보 A와 B의 심리적 표상체
 b. A로부터 B를 추론하는 과정 자체
 c. 맥락 C의 개념 및 추론에 관한 그 맥락의 영향

가장 넓은 관점에서 추론은 (5)에 제시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담화 연구에 널리 사용되지만, 번역을 위한 한 영역으로써 주어진 맥락에서 의미론적 구정보로부터 의미론적 신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 추론과 번역의 상관성

3.1 명제적 지식

우선 번역 작업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떤 표현을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번역가는 목표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 목표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단어나 문장이 갖는 명제적 지식(개념적 지식)으로 단어의 뜻과 구문의 뜻을 합친 것이고 언어관계 또는 관용적 표현이 가지는 의미로써 알아야 한다. 또한 언어가 반영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상의미를 파악하여 단어와 단어의 연결에 의한 앞문장과 뒷문장의 전반적인 의미에 따른 명제적 지식에 관련된 추론에 충실하여야 한다.

⁷⁾ A, B, C 및 화살표

(10) I saw that gasoline can explode⁸⁾. (Sperber & Willson, 1986:184)

(10)의 가능한 번역 내용은 (11a)와 (11b)와 같다.

(11) a. I saw that it is possible for gasoline to explode.

(나는 휘발유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b. I saw that can of gasoline explode.

(나는 저 휘발유통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10)이 단독으로 처리될 때는, 보편적 중의성 해소 절차로써 (11a)의 번역 내용을 가져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이 뒤에 이어지면 (11b)와 같은 재번역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12) And a brand new gasoline can it was too.

(그런데 그것은 아주 새 휘발유통이었어.)

3. 2 원문의 흐름에 대한 텍스트성

번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 작업은 번역하려는 글을 완전히 통독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는 번역물의 장르에 따라 논리 전개나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끝까지 파악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는 좌충우돌식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번역은 텍스트성을 통하여 일정한 원리를 바탕으로 대체(alternativity)⁹⁾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지, 상호작용, 그리고 절충작용으로부터 전개되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번역의 상호작용적이고 절충적인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원작자의 발화체를 사고와 연관 지어 파악하는 일은 어휘 선택이나 상황설정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글의 분위기 묘사가 달라지는 것은 번역자가 원작자를 철저히 연구하지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번역자는 원문의 내용파악과 함께 원작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8) 소위 정원길 발화(garden-path utterance)라고 불린다.

9) '직역'이 아니라 '의역'으로의 대체를 말함.

- (13) If Robert Frost was much honored during his lifetime, it was because a good many preferred to ignore **his darker truths**.

우선 문장의 흐름에 대한 텍스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his darker truths* 를 문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만 번역하면 (14)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번역이 된다.

- (14) 로버트 프로스트가 일생동안 많은 영예를 누렸다 해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두운 진실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5)에서 언급한 잠정적 추론과 (6a)에서 언급한 의미론적 정보를 근거로 ‘진실’에는 ‘어두운 진실’과 ‘밝은 진실’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추한다면, *his darker truths*를 *his hidden*, 또는 *concealed truths*의 의미, 즉 ‘그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의 의미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낱말의 개념과 텍스트 발화체가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및 담화맥락이 상호작용적이고 절충적인 본질로 분석되어 (15)와 같은 올바른 번역이 나오게 된다.

- (15) 로버트 프로스트가 일생동안 많은 존경을 받았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을 문제 삼지 않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보그란테(Beaugrande, 1987:77)에 의하면 번역은 전체에서 시작하여 작은 부분으로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다. 먼저 전체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분위기를 통일하고 어법은 일치시키며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은 하나의 텍스트 유형으로써 원작자가 생산한 발화체를 예측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번역에서 텍스트의 유형은 원문의 흐름에 대한 효율성, 유효성, 그리고 적절성을 결정하는 두드러진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 (16) 예를 들어, 존 스타인벡의 “The Red Pony”를 읽는 사람은 농장의 동물들에 관하여 자신이 참이라고 수용하고 있는 지식을 직접 적용시킬 수 있다. 화이트의 “Charlotte’s Web”의 경우에는, 농장 자체는 여전히 인간에 의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번역하는 사람은 농장의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조지 오웰의 “Animal Farm”에서는 동물들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없이 농장을 맡아 운영하기도 한다. 더욱이 루이스 캐롤의 “Alice in Wonderland”와 같이 환상적인 성향이 강한 문학 텍스트에서는 ‘그리폰(Gryphon)’처럼, 실제 동물들의 각 신체부위로 조합된, 말도 하고 자축하는 동물로 창조해낸다.

우리가 원문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 작품 진행 과정의 각 단계마다 동물에 관한 현실 세계의 스키마(schema)들을 꾸준히 분해하면서 여타의 스키마들, 가령 인간의 언어와 행위에 관한 스키마들로부터 많은 요소들을 투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업은 언제나 하나의 지속대 안에서 원문의 흐름에 대한 정도의 문제를 유지하면서 수행되는 것이지, 현실 세계에 관한 우리의 스키마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갑자기 넘어가면 올바르지 못한 번역이 될 수 있다.

3. 3 원문과 동일한 문체적 등가관계

문체는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문체는 작품의 특징이며 체취이다. 그러한 점은 작가의 참맛을 작품에서 찾는 것으로 어떠한 작품에 대한 맛의 바탕이 바로 문체이다. 안정호(2002)¹⁰⁾는 번역해야 할 글의 문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¹⁰⁾ 안정호(2002:478-505)는 올바른 번역의 필요성을 열 가지 원칙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열. 번역도 살을 빼야 건강하다.

너털너털한 번역은 반드시 살을 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들어 “I want to kill you.”는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보다는 “너 죽어!”, “죽어”라는 한 마디로 충분하다.

아홉. 번역은 시각적인 음악이다.

공백도 의미이고 빈 칸도 번역해야 한다.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은 전하고 자 하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짧은 문장은 긴장감을 일으키고, 빠르고, 숨차며, 긴 문장은 여유 있고 나른하며 나태하다.

여덟. 이해를 못하면 번역도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하면서 번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행위는 전혀 용기가 아니다.

일곱. 원문을 덮어두고 우리말을 다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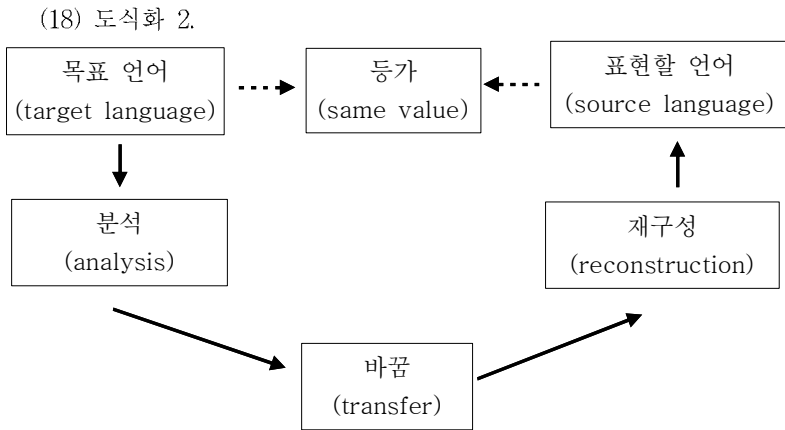
일단 초벌 번역한 글은 치워두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원문을 보지 않

- (17) a. 번역할 작가의 작품세계를 알아야 하고,
 b. 번역할 작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고,
 c. 번역할 문장의 특성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조건들은 아마도 번역자가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니까”라는 지극히 편리한 이유를 내세워 원작자의 문체나 표현방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번역자 자신의 창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 아니라 고도로 정밀하게 발달한 기술이어야 한다. 번역자는 그가 앞으로 번역해야 할 작품의 성격을 검토를 한 뒤에 제일 먼저 어떤 문체를 택하여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번역에서 중요시하는 등가 개념에 문체적 등가 또한 중요하다. 다음의 도식화는 문체적 등가가 재구성과 표현할 의미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 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섯. 번역은 창작이 아니다.
 번역이란 작가가 한 언어로 쓴 작품을 고스란히 다른 언어로 옮겨야 하는 작업이다. 절대로 번역가의 글을 전하는 행위가 아니다.
 다섯. 영어문장은 한글로 써도 영어이다.
 번역체로 피동태, 소유격 등을 외국어 흉내 내서 번역 말자.
 넷. 일관된 원칙을 만든다.
 체계적인 원칙을 세워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번역문에 표현한 우리말 어휘들이 잘 어울리는지 적절성을 살피고 원칙을 정해 지어야 한다.
 셋. 번역은 귀로 수비한다.
 문장은 관념이 아니라 언어이다.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이고 생필품이다.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말을 해야지 관념을 기호화해서는 안 된다. 생생한 대화의 본질과 성격을 터득하고 아낌없이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 문체를 번역한다.
 대화체, 서술체, 논문체 등 저마다 다른 문체를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런 기본 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앤다.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빈번한 단어의 반복을 견제하는 과정이다. ‘것’과 ‘수’와 ‘있다’라는 단어 이외에 ‘가진’이나 ‘너무’도 대상이다.



위의 도식화처럼 원작자의 문체를 번역자가 제대로 번역하여 문장의 의도를 올바르게 추론해간다면, 번역자는 그 참맛을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

- (19) 예를 들어, 소울 벨로우의 『험볼트의 선물』(*Humbolt's Gift*)을 번역할 때는 어휘선택이 대학교수의 강의체여야 하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의사 지바고』(*Doctor Zhivago*)는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인 수필체가 잘 어울리고, 제임스 더버의 『우리시대를 위한 우화』(*Fables for Our Times*)는 조흔파의 「알개진」 문체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문체적 평가면에서 (19)의 예문에 제시된 작품들의 번역자가 원작자의 작품세계, 성격, 그리고 문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번역자의 언어능력과 언어 외적 요소인 담화·화용능력 등의 결핍으로 야기되는 의미적인 중의성 및 문체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원작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다소 지루하고 파문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무리 뛰어난 영어 실력이라 해도 그런 실력은 원문의 뜻을 파악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원문의 이해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는 파악한 내용을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20)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21) “I was not born yesterday.”

(20)의 사전적 의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고전 「심청전」에서 사용된다면 상황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에 맞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다음 문체에 대응하는 가장 가까운 동등함으로 재현된다. (21)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현대의 어떤 각박하고 야비한 상황에서 일종의 짜증이나 성남이 내포될 수 있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다음에 오는 문체에 동등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원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여러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번역자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 4 목표언어(target language)와 표현할 언어(source language)의 등가관계

번역은 표현할 언어가 목표언어와는 서로 다른 제3의 기호로서 의미, 의도, 그리고 문체를 목표언어로 재현시키는 작업이다. 표현할 언어의 본문은 목표언어의 동등한 본문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번역은 언어들의 화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왕국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은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간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선은 의미, 그 다음에는 문체에 대응하는 가장 가까운 자연스런 동등함을 재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번역은 두 언어를 가장 가깝게 해주고, 짝지어주는 진실한 표현에 호소한다는 것으로 번역은 타협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들 번역자들 사이에서 원전은 부모와 같고 번역은 자식과도 같다고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는 목표언어와 표현할 언어 사이의 시간적·문화적 차이가 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번역은 원작자의 의도를 헤아려 추론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내용에 어떤 언어가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체적 수준, 사회문화의 배경이 담긴 의미론적 수준의 개념이며 언어 사용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의도를 나타내는 실제 사용수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북미 시인 뢰트키의 사후 1964년에 발간된 마지막 시집 『먼들판』(*The Far Field*)중 다섯 번째 시의 원문과 그것의 번역본인 심진호(2006)를 보면, 번역자는 시인이 자연계의 다양한 사물들과 합일을 이룸으로써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고 죽음을 통해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믿는 초월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을 시인의 의도에 따라 추론하여 사회문화적 배

경이 담긴 의미론적 개념으로 언어 사용 이면에 감추어진 심리적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22) -Or to lie naked in sand,
 In the silted shallows of a slow river,
 Fingering a shell
 Thinking:
 Once I was something like this, mindless,
 Or perhaps with another mind, less peculiar;
 Or to sink down to the hips in a mossy quaghire;
 Or, with skinny knees, to sit astride a wet log,
 Believing:
 I'll return again,
 As a snake or a raucous bird,
 Or, with luck, as a lion. (CP 200)

- (23) -아니면 천천히 흐르는 강의 침적토로 꼭 찬 여울,
 모래 속에 별거벗은 채 드러누워,
 조가비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한다:
 한때 나는 이와 같이, 무념의 어떤 존재였으리라,
 아니면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진, 덜 특별한 존재였으리라;
 아니면 이끼 낀 습지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으리라;
 아니면 여윈 무릎으로 젖은 통나무에 걸터타는 존재였으리라,
 믿는다:
 나는 다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뱀으로서 혹은 목원 소리를 내는 새로서,
 아니면 운 좋게 사자로서.

(22)에 대한 (23)의 번역을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를 표층 텍스트에 배치하는 번역자의 책략이 잘 구성되었다. (22)과 같은 시를 텍스트 처리하기 위해서는, 번역자는 텍스트 상의 언어 자체(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의 각별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번역자는 시적화자인 '나'가 깨달은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없이 모든 사물이 연쇄적인 의미의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스키마에 의한 추

론을 잘 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의 문체를 제대로 번역하여 문장의 의도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인의 죽음을 삶의 순환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다시 뱀, 새, 또는 사자로 환생하리라는 추론을 하게 만들며, 마치 만다라(mandara)를 연상시키는 “신비스런 원”의 이미지는 궁극적인 전체성(wholeness)을 가지게 한다. 이 시의 번역자는 언어 사용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심리적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동·서양의 문화적·사고적 개념에도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마음의 정체성에 대한 등가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번역에서 담화적인 요소인 추론의 필요성과 스키마, 텍스트성, 문체의 등가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사실상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한다면 다양한 중의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은 한 문화권에 속하는 원작자의 의도를 위해 작품이 지닌 내용을 제대로 살려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 속하는 독자에게도 올바른 이해와 감동을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이중의 책임이 따른다.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조건에 지나지 않고, 이해하는 능력 자체만으로는 번역에 임할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영어의 문형은 우리말과 매우 다르다.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눈앞에 영문을 놓고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끌려 눈앞에 있는 원문의 문형을 무수한 우리말로 번역하기 쉽다. 문형이 반영하는 상황적 맥락이나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이란 어느 작품 또는 발화 전체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하나하나의 문장을 다른 언어로 명제적 개념에 의해서 표현할 때 경우를 따지는 국부적인 요소다.

(24) a. (seeing the charity pot) I am a poor beggar.

b. Don't worry, many people would drop some money into the charity pot.

(24a)의 문형을 영어식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가난한 거지이다’라는 번역으로 음성적, 형태적 정보를 나타내는 ‘poor’와 ‘beggar’가 잉여적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8)에서 언급한 추론과정을 따라서 (24a)를 구정보로 상정하고, (24b)를 신경정보로 상정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모금을 잘 하지 못한다/나는 모금을 하는 데 서투르다’라는 추론적인 번역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구세군이 자선냄비를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상황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 번역은 두 언어를 짝지어 주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고 같은 어휘는 문화권이 다른 두 나라에서 영똥하게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번역가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지 각각이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번역자의 언어 선택이 항상 적절해야 한다.

올바른 번역자가 되기 위해서 끈질기고 계속적인 노력으로 여러 종류의 담론, 화행이론, 그리고 텍스트 이론 등의 지적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 말의 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훌륭하고 올바른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폭넓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인 배경 지식도 습득하여 원문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어로 된 책을 원서로 읽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경원. (1992). 중의성과 모호성에 관한 연구. *영어영문학 연구*, 34, 251-270.
- 김정우. (1997). *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창문사.
- 김태욱. (1995). *담화연구서설*, 서울:서강대학교 출판부.
- 박기태. (2006). 의사소통에서 기호모델의 한계와 관련성 원리. *현대영미어문학*, 24, 125-140.
- 박경자, 장영준. (2000). *번역과 번역하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용삼. (200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교 출판부.
- 심진호. (2006). 써어도어 뢰트키의 생태학적 상상력. *현대영미어문학*, 24(1), 87-107.
- 안정효. (1999).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현암사.

- (2002). *번역의 공격과 수비*, 우석.
- 유영난. (1995). *번역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윤성규. (2007). 영어의 번역과 오역사례 연구. *언어학*, 15(2), 135-164.
- 이기문. (2001). *번역의 길잡이*. 백산출판사.
- Beaugrande, R. de. (1987). Schemas for literary communication. In L. Halasz(ed.), *Literary discourse*. Berlin:Walter de Gruyter.
- Bell, Roger T. (1995). *Translation and Translating*, Longman.
- Bransford, J. Barclay, R. and Franks, J. (1972). Sentence memory: A constructive versus interpretative approach. *CogP*, 3, 193-209.
- Brasford, J. and Johnson, M. (1973). Consideration of some problems of comprehension. In William Chase(Ed.),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New York: Academic Press, 383-438.
- Brewer & Hay, AE. (1984). Reconstructive recall linguistic style.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 Harris, Z. (1964). Discourse analysis. *The Structure of Language: readings in the philosophy oh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ickheit, G. Schnotz, W. and Strohner, H. (1985). *Inferences in Text Prossessing*. Amsterdam: North Holland.
- Sperber, D. an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 well.
- Van Dijk, T. and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박기태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번지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전화: (041)730-5422

E-mail: ktpark@konyang.ac.kr

Received: 30 September, 2007

Revised: 26 November, 2007

Accepted: 10 December, 2007